

## 잡아함 12 인연경 2

---

날짜: 10월 22nd, 2023

출처: <http://www.dhamma.kr/wp/?p=17520>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무상하다. 모든 색을 생성시키는 인(因)과 연(緣)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에 의해 생긴 색들이 어떻게 항상하겠느냐?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은 무상하다. 모든 식을 생성시키는 인과 연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에 의해 생긴 식들이 어떻게 항상하겠느냐? 이와 같이 비구들아, 색은 무상하고 수·상·행·식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가 아니며, 나가 아니면또한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 한다.

거룩한 제자들아, 이렇게 관찰하면 그는 곧 색에서 해탈하고, 수·상·행·식에서 해탈하나니, 나는 이러한 것을 ‘태어남·늙음·병듦·죽음·근심·슬픔·괴로움·번민에서 해탈하였다’고 말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밭들어 행하였다.

---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